

경제동향

■ 요약

■ 생산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
■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■ 고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■ 물가 소비자물가/ 신선품

한진아(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)

■ 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
■ 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재단

■ 수출입 수출입액/수출입 품목/국가별 품목, FTA

양승희(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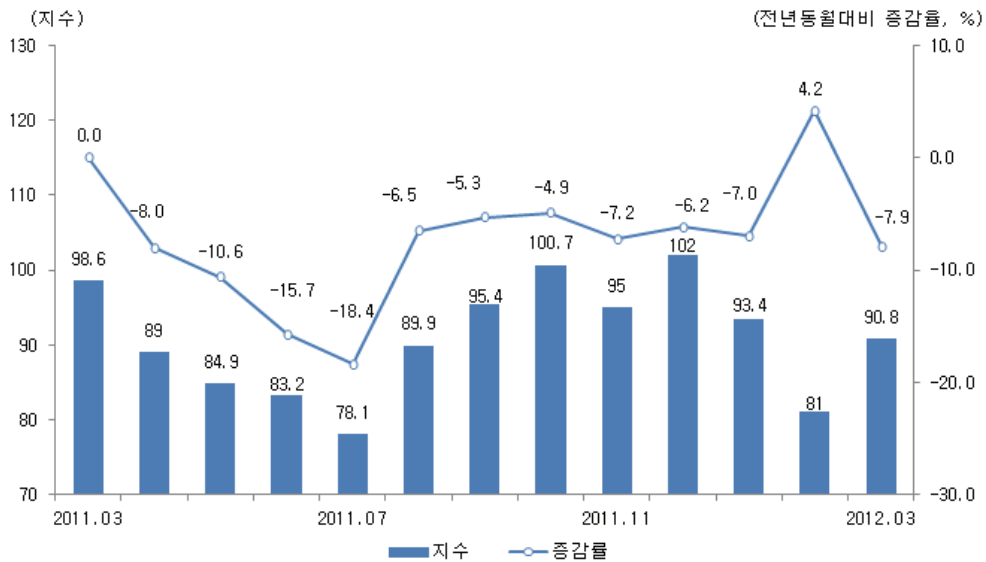
소비	<p>서울의 3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.2%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3월 달 대형소매점 판매 상승은 신학기 준비와 겨울용품의 마지막 세일 등의 영향이 판매액 증가에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.</p> <p>전년동월대비 부문별로 판매액은 백화점 5.8%, 대형마트 4.4% 각각 증가하였으며, 권역별로는 4권역인 강남, 서초, 송파 등 강남 3구 및 강동구가 1위, 그 다음으로 1권역(종로, 중구, 용산, 마포, 서대문, 은평)인 것으로 나타났다.</p>
고용	<p>서울의 3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다소 호전된 모습을 나타냈다.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고, 고용률 상승, 실업률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.</p> <p>그러나 연령별 취업자 중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감소하여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. 또한 구인, 구직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는 3월이므로 현재의 고용율은 안정화 단계로 볼 수 없으며 꾸준한 성장을 위해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된다.</p>
물가	<p>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.8%로 12개월 만에 2%대를 나타냈다.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항목은 생선, 채소,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으로 5.6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신선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.</p> <p>전도시의 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평균은 2.6%로 나타나 서울이 전국에 비해 0.2%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</p>
부동산	<p>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, 주택전세가격은 전월과 비슷하게 상승하였다.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, 전세가격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</p> <p>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타 지역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신규 유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량이 적체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. 아파트가격은 주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층에 맞는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.</p>

| 생 · 산 |

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 중공업부문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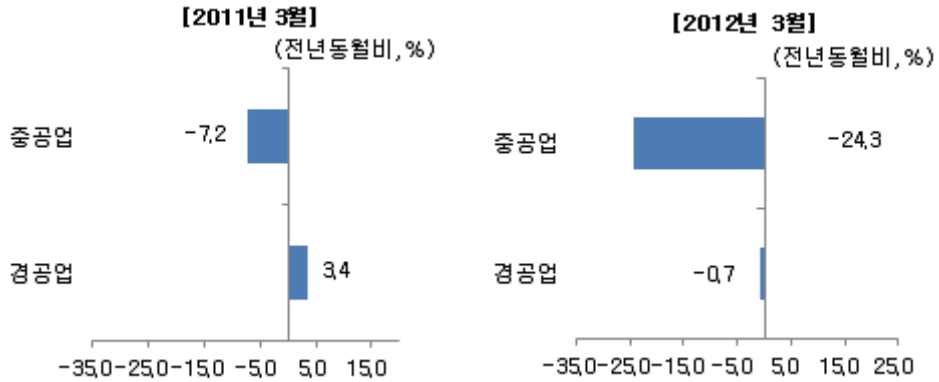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

- 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는 90.8(2005=100)로 전년동월대비 7.8% 감소
-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4.3%,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.7% 각각 감소
- 전년동월대비 인쇄 및 기록매체(4.5%)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(-43.4%), 기계장비(-36.2%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음향통신(-11.8%), 고무 및 플라스틱(-28.9%) 등에서 감소
- 중공업, 경공업 부문 모두 감소하여 1개월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등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산업생산(중공업, 경공업) 증감률

■ 전국의 3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3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.2% 증가
-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(-14.9%), 기계장비(-4.0%) 등에서 감소하였으나, 반도체 및 부품(7.2%), 자동차(8.3%) 등에서 증가하여 0.3% 증가
-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운수(-3.9%), 부동산임대(-6.3%)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(7.9%), 금융보험(2.2%) 등이 증가하여 1.4% 증가
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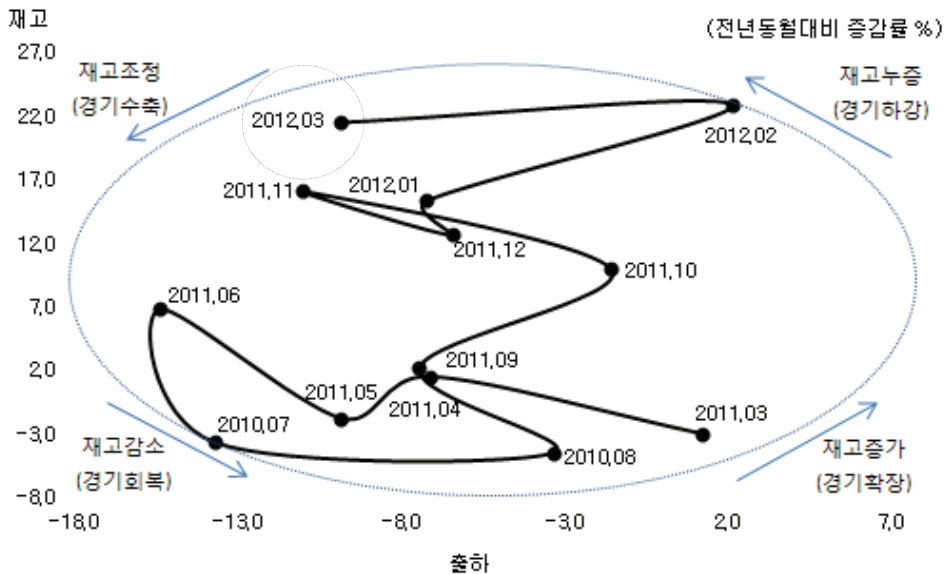
서울의 3월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누증 단계

■ 서울의 3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증가, 재고 감소

- 서울의 3월 재고지수는 184.5(2005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21.5% 증가
- 서울의 3월 출하지수는 94.7(2005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9.0% 감소
- 출하 증가, 재고 증가로 의도된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(<Box> 참조)

<참고> 출하·재고 순환 상관표

경기수축기	경기회복기	경기확장기	경기하강기
출하↓	출하↑	출하↑	출하↓
재고↓	재고↓	재고↑	재고↑
재고조정	재고감소	의도된 재고증가	재고누증



<그림>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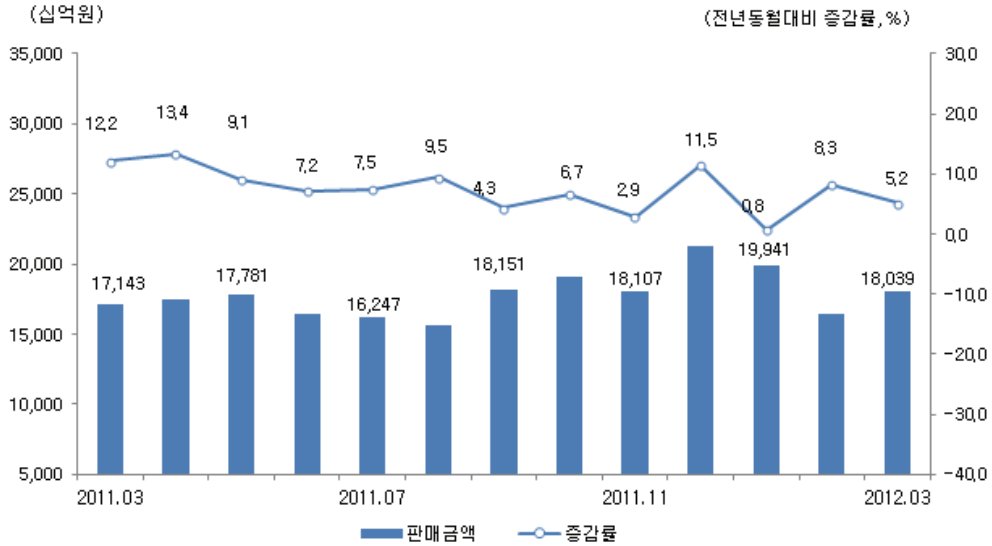
| 소 · 비 |

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패션용품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
 -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5.2% 증가
 -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5.8%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4.4%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판매액 1조8천40억원 중 패션용품이 40.1%인 7천238억원, 식품이 30.1%인 5천431억원, 생활용품이 18.3%인 3천301억원 판매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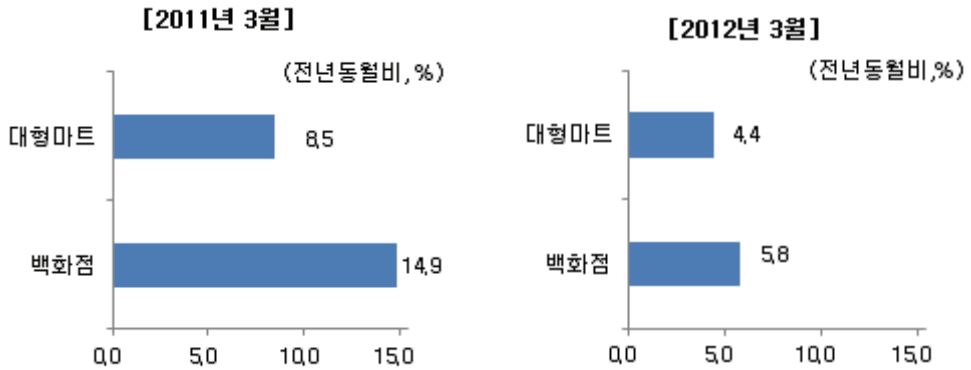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3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, 권역별로는 강남 3구 각각 1위
 -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(56.7%)이며 생활용품(19.9%)인 것으로 나타남
 - 대형마트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식품(56.9%), 생활용품(15.9%) 순으로 나타남
 - 권역별로는 4권역(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)이 41.4%인 4천197억원을 판매하였고, 다음으로 1권역(종로, 중구, 용산, 마포, 서대문, 은평), 3권역(동작, 관악, 영등포, 금천, 구로, 양천, 강서) 순으로 나타남

-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보합
 -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보합세
 -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.0% 증가, 대형마트는 3.3% 증가
 -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, 가전제품,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.1% 감소, 의복 등의 준내구재가 0.4% 증가, 음식료품, 서적문구 등의 비내구재는 1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| 경 · 제 · 활 · 동 · 인 · 구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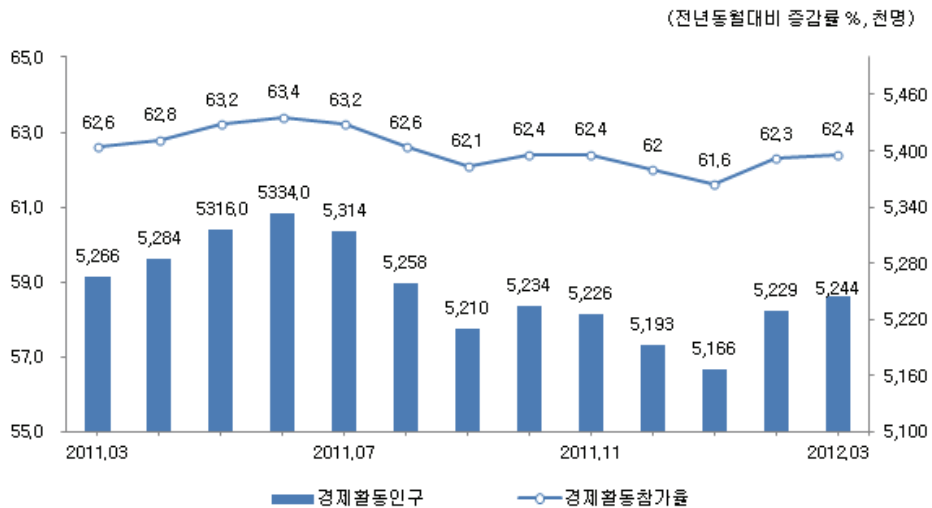
서울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

■ 서울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

- 서울의 3월 15세 이상 인구는 8,4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(0.0%)이 감소
- 경제활동인구는 5,24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명(-0.4%)이 감소
- 경제활동참가율은 62.4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
- 비경제활동인구는 3,1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천명(0.7%)이 증가

■ 전국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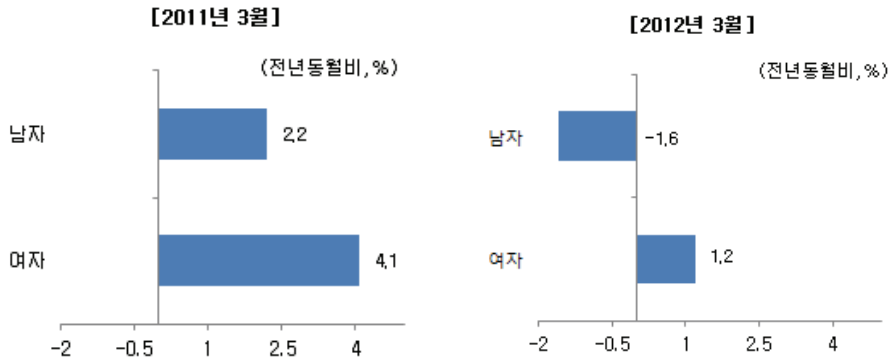
- 전국의 3월 15세이상인구는 4,141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7천명(1.2%) 증가
- 경제활동인구는 2,52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2천명(1.2%) 증가
- 경제활동참가율은 60.9%로 전년동월과 보합
-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.9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하락하였고, 여자는 49.4%로 0.3%p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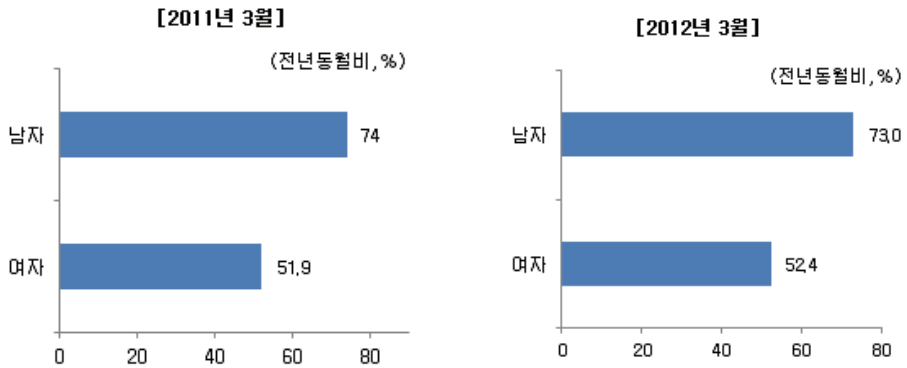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

- 서울의 3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는 하락, 여자는 상승
 -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,967천명, 여자는 2,27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.0% 하락, 여자는 0.5% 증가
 -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.0%, 여자는 52.4%로 전년동월대비 남자, 여자 각각 1.0%p 하락, 0.5%p 증가


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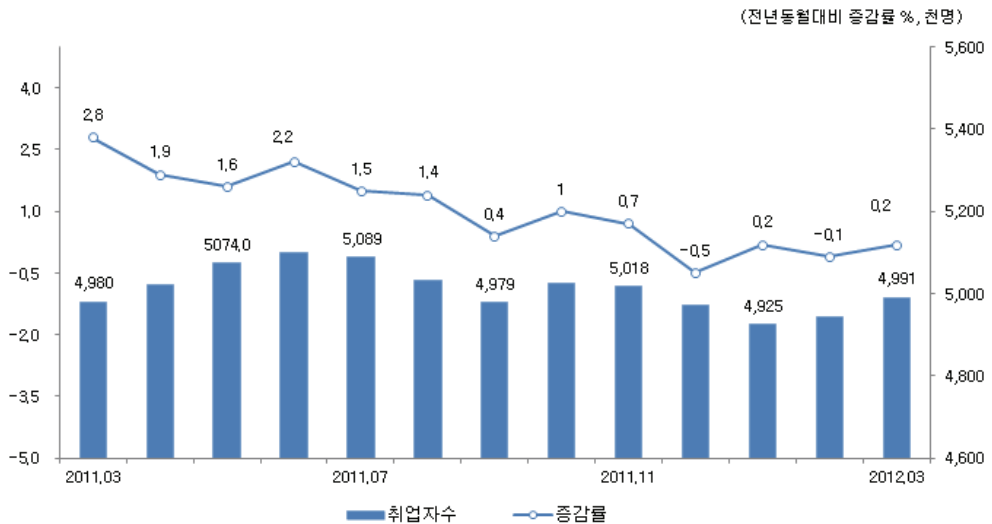

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

| 취·업·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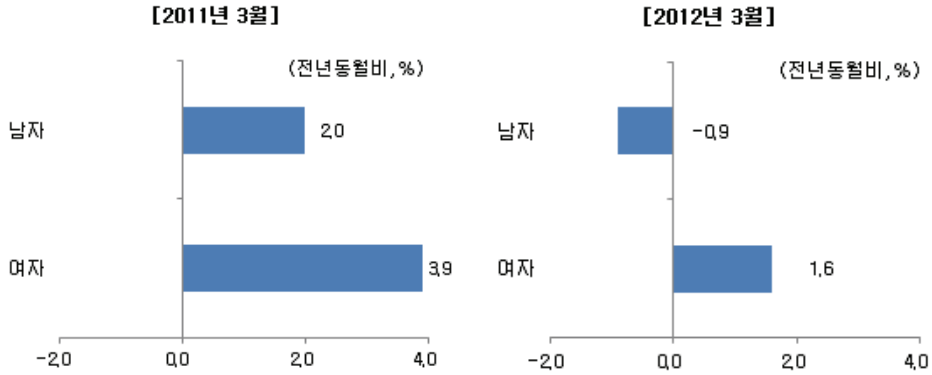
서울의 3월 취업자 수 여자취업자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서울의 3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 - 서울 3월 취업자는 4,99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(0.2%)이 증가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,810천명, 여자는 2,1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4천명(-0.9%)이 감소한 반면, 여자는 35천명(1.6%)이 증가
- 전국의 3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
 - 전국의 3월 취업자는 2,42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9천명(1.8%) 증가
 - 성별로 보면 남자는 1,41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8천명(1.3%) 증가하였고, 여자는 1,007만5천명으로 24만1천명(2.5%)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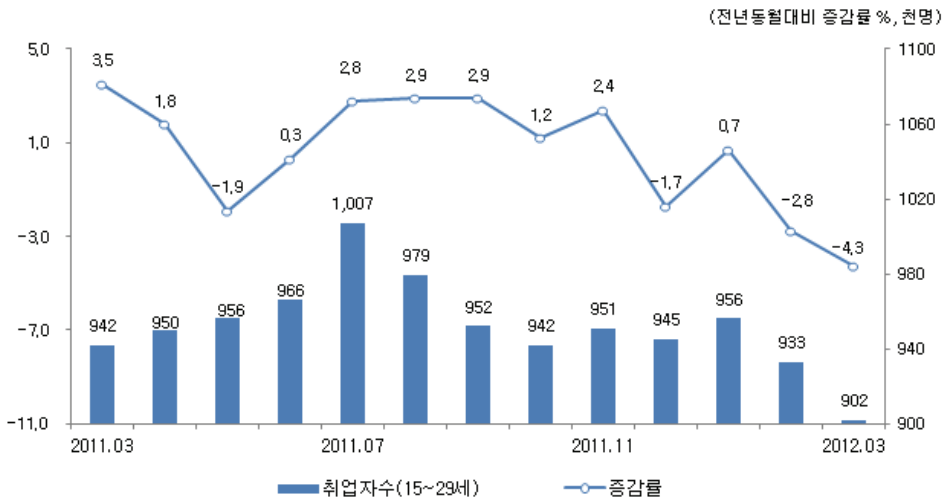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



<그림>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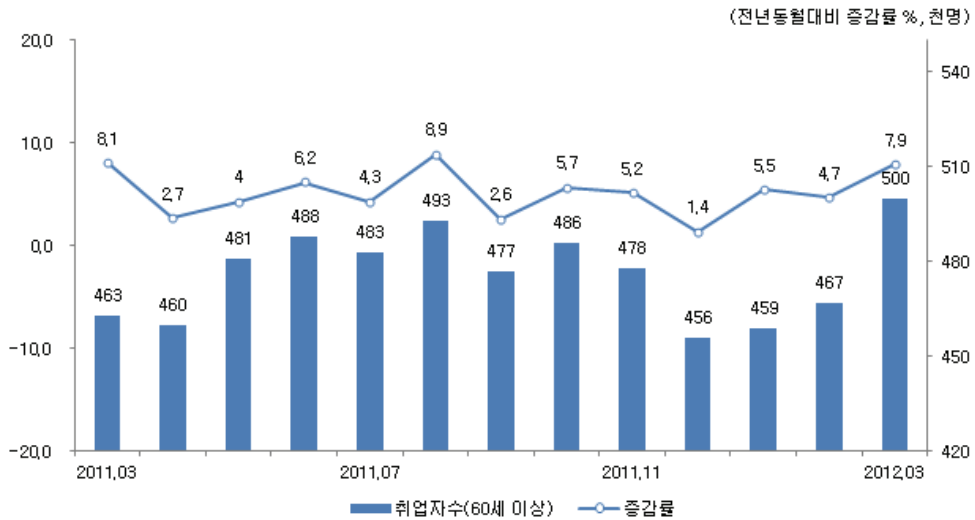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3월 청년층(15세~29세) 감소,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증가

- 서울의 3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.3% 감소로 3개월간 하락세 지속
- 서울의 3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.9%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(15세~29세)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(60세 이상) 추이

■ 산업별로 농림어업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각각 증가

-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(10.0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34천명(4.2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47천명(2.4%), 제조업 1천명(0.1%)이 각각 증가
- 건설업 29천명(-7.7%), 도소매·음식숙박업 43천명(-3.2%)은 각각 감소

■ 직업별로 사무종사자,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증가, 그 외 나머지 종사자는 감소

-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70천명(7.6%),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(7.4%) 각각 증가
- 관리자·전문가 43천명(-3.0%), 기능·기계조작·조립·단순종사자 11천명(-0.8%), 서비스·판매종사자 6천명(-0.5%)은 각각 감소

■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,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감소
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38천명(-3.8%), 무급가족종사자는 14천명(-8.2%)이 각각 감소
-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99천명(4.4%), 임시근로자는 14천명(1.3%)이 각각 증가한 반면, 일용근로자는 50천명(-11.8%)이 감소

| 고 · 용 · 률 · 및 · 실 · 업 · 률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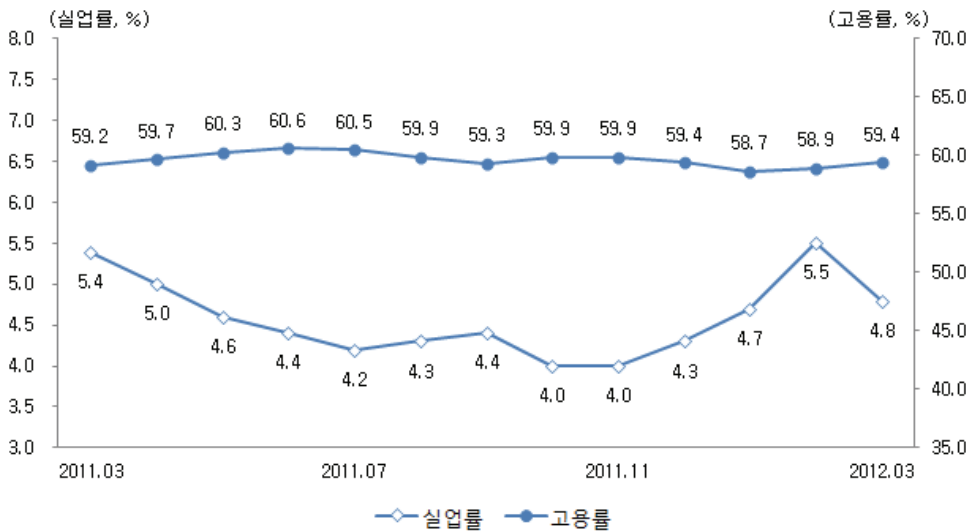
서울의 3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, 실업률 하락

■ 서울의 3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3월 고용률은 59.4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상승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9.2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한 반면, 여자는 50.2%로 0.7%p 상승
-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(58.6%)에 비하여 0.8%p 높은 수준임

■ 서울의 3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

- 서울의 3월 실업률은 4.8%로 전년동월대비 0.6%p 하락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5.3%로 전년동월대비 0.7%p, 여자는 4.2%로 0.5%p 각각 하락
-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3.7%)에 비하여 1.1%p 높은 수준임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물 · 가 |

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 집값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

■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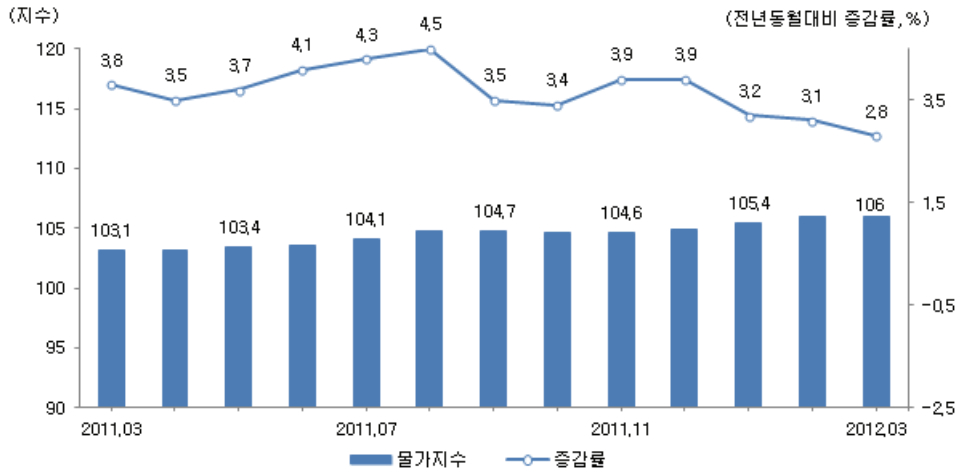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3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6.0(2010년=100.0)으로 전년동월대비 2.8% 상승
-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4.0% 상승, 그 중 농축수산물은 2.8%, 공업제품은 전년동월대비 4.0% 각각 상승
-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2.0% 상승, 그 중 집세는 5.0%, 공공서비스 1.7%, 개인서비스 0.6% 각각 상승

■ 서울의 3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,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

-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.1% 상승
- 생선류, 채소류,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.6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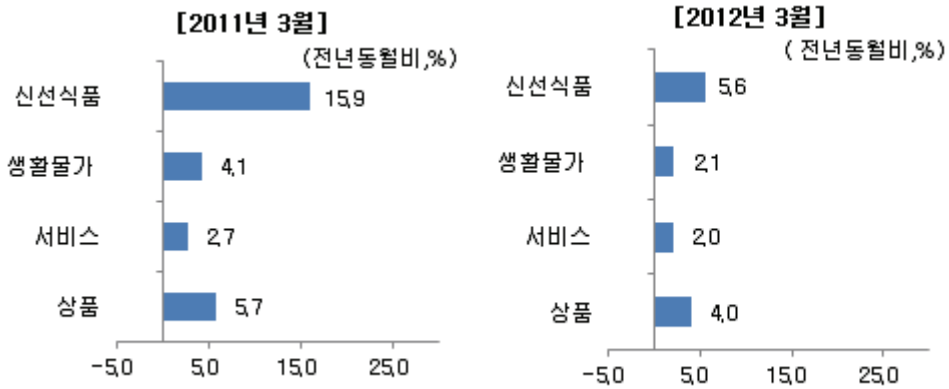
■ 전국 3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전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.0(2010년=100)으로 전월대비 0.1% 하락, 전년동월 대비로는 2.6% 상승하여 2010년 8월(2.7%)이후 처음으로 2%대 시현
-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4% 하락, 전년동월대비 2.0% 상승,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3.5%, 전년동월대비 4.7% 각각 상승
-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충남은 0.2%, 서울과 대구는 0.1%씩 각각 상승, 나머지 12개 시도는 0.1~0.8%씩 하락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 (2005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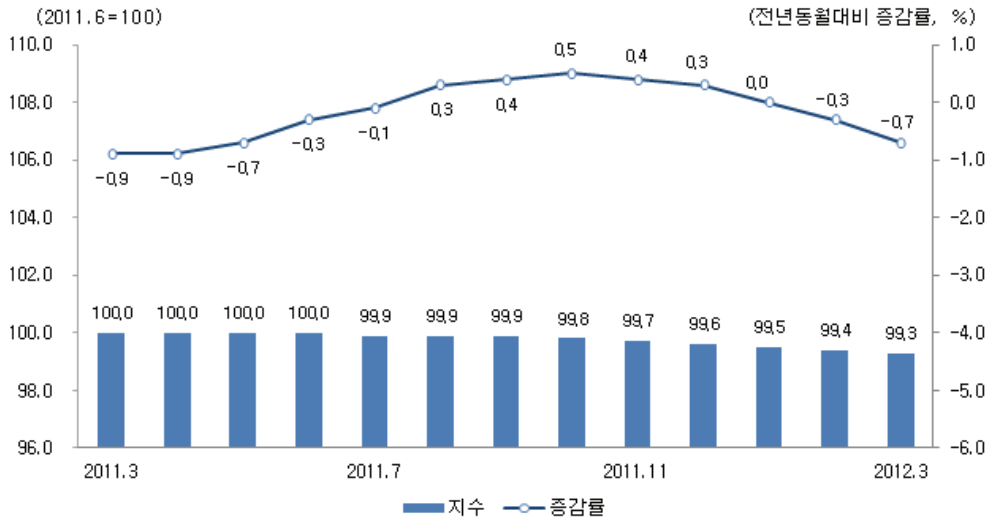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
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

-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
 -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매매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.1% 하락하여 5개월 연속 하락세
 -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며 0.2% 하락한 가운데, 단독주택은 0.1% 상승하였고 연립주택은 전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

- 전국의 3월 주택매매가격 4개월 연속 동일하게 상승세
 -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0.2% 상승
 - 수도권은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어 전월대비 0.2%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.4%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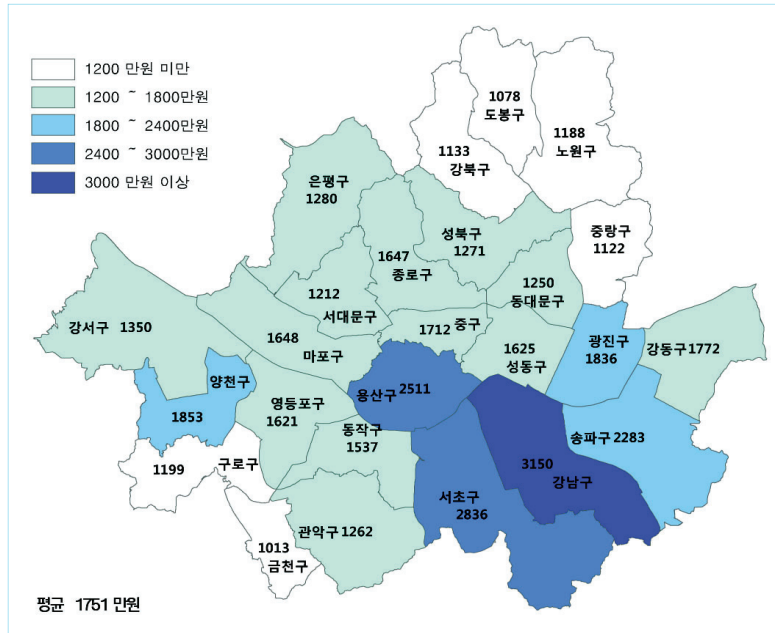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그림>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**강북지역은 종로구에서 상승한 가운데, 도봉구와 마포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.1% 하락**
 - 종로구는 종로와 대학로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평창동과 이화동의 연립에서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월대비 0.2% 상승
 - 도봉구는 수요자들의 시장 관망세가 확대되는 가운데, 급매물조차 거래가 어려운 모습을 지속하며 전월대비 0.3% 하락
 - 마포구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수요 급감에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적어지면서 전월대비 0.1%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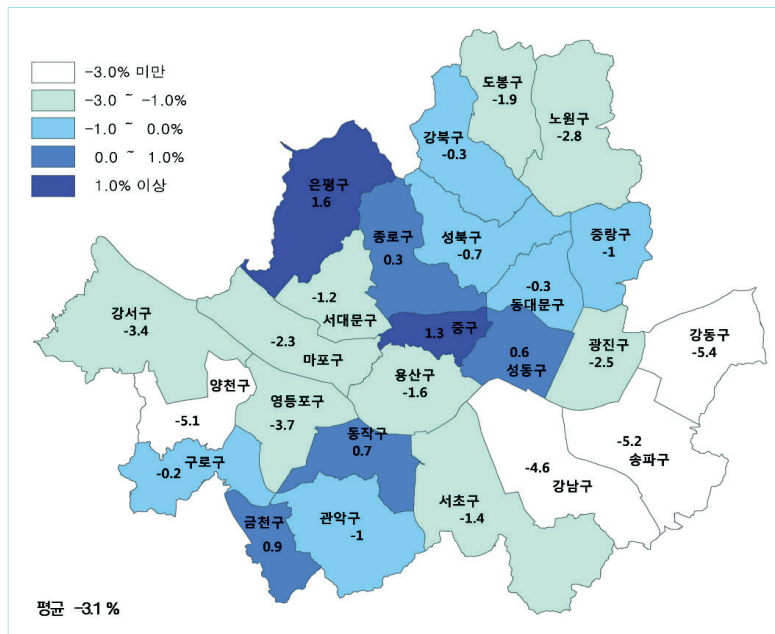
- **강남지역은 강동구, 금천구 등에서 보합하고 강남구와 양천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.2% 하락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**
 - 강남구는 경기 위축으로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 개포동과 대치동, 압구정동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심화되며 하락폭이 확대되어 전월대비 0.4% 하락
 - 양천구는 인근 지역대비 높은 가격 형성으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의 수요가 급감하며 가격이 하향 조정되어 전월대비 0.3% 하락

- **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**
 -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51.2만원으로 전월대비(1761.1만원)대비 하락하여 13개월 연속 하락세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2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(3,150만원), 서초구(2,836만원), 용산구(2,511만원), 송파구(2,283만원), 양천구(1,853만원), 광진구(1,836만원), 강동구(1,772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1,013만원), 도봉구(1,078만원), 중랑구(1,122만원), 강북구(1,133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



자료 : 부동산 1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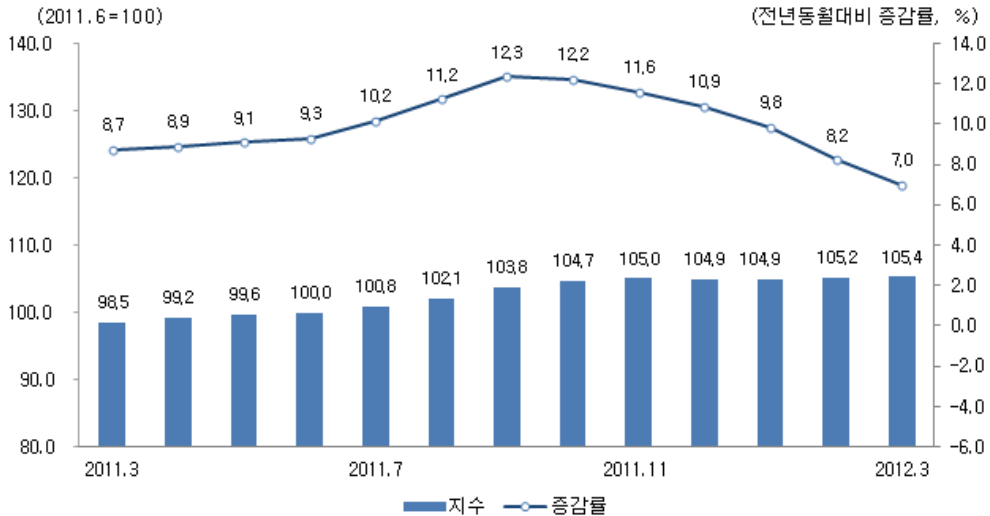
<그림>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서울의 3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과 비슷하게 상승

- 서울의 3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
 -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.3% 상승하였으나 지역별로 격차 보임
 - 주택유형별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각각 0.2%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, 연립주택은 0.3% 상승으로 전월에 비해 상승세 다소 둔화

- 전국의 3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
 -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 수요 증가로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전월대비 각각 0.5%, 0.7%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0.5%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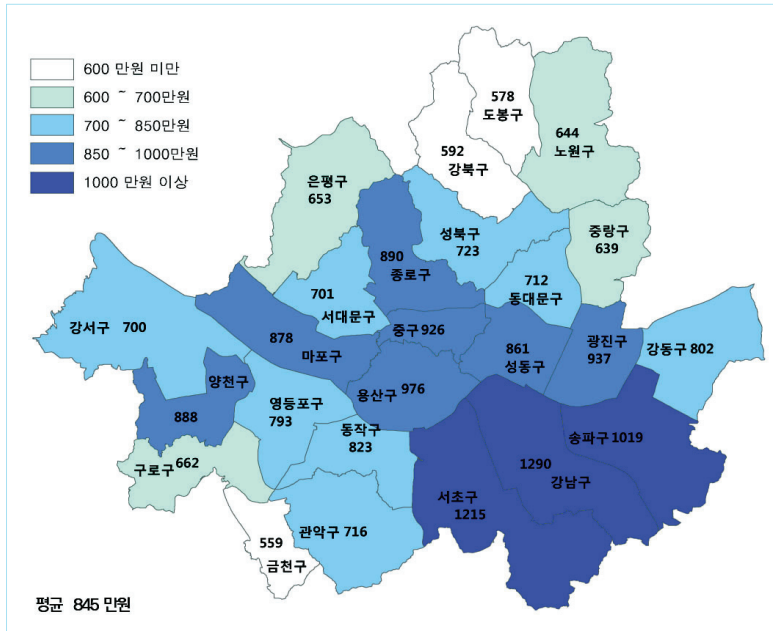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그림>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**강북지역은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등에서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.3% 상승**
 - 동대문구는 전세물량 부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전월대비 0.8% 상승
 - 서대문구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연립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홍은동, 북가좌동 중심으로 전월대비 0.6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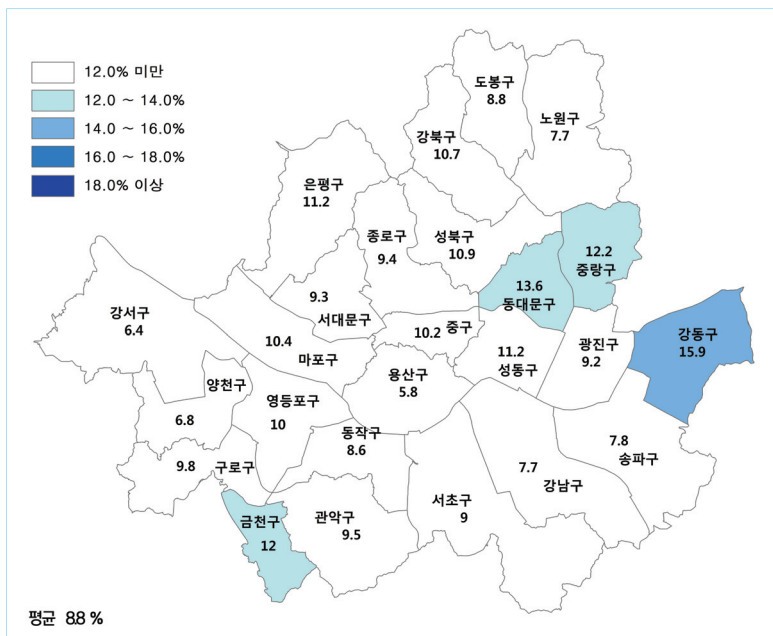
- **강남지역은 금천구와 강동구 등에서 상승한 가운데, 강남구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.2% 상승**
 - 금천구는 시흥동 힐스테이트 입주 마무리되면서 신규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량 출회가 드물어지며 전월대비 0.5% 대폭 상승
 - 강동구는 고덕시영 재건축 이주수요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주가 마무리되면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며 전월대비 0.5% 상승
 - 강남구는 예년에 비해 학군수요가 감소하고 타 지역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신규 유입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0.3% 하락하여 4개월 연속 하락세

- **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**
 -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5.0만원으로 전월대비(844.7만원) 상승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(1,290만원), 서초구(1,215만원), 송파구(1,019만원), 용산구(976만원), 광진구(937만원), 중구(926만원), 종로구(890만원), 양천구(888만원), 마포구(878만원), 성동구(861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559만원), 도봉구(578만원), 강북구(592만원), 중랑구(639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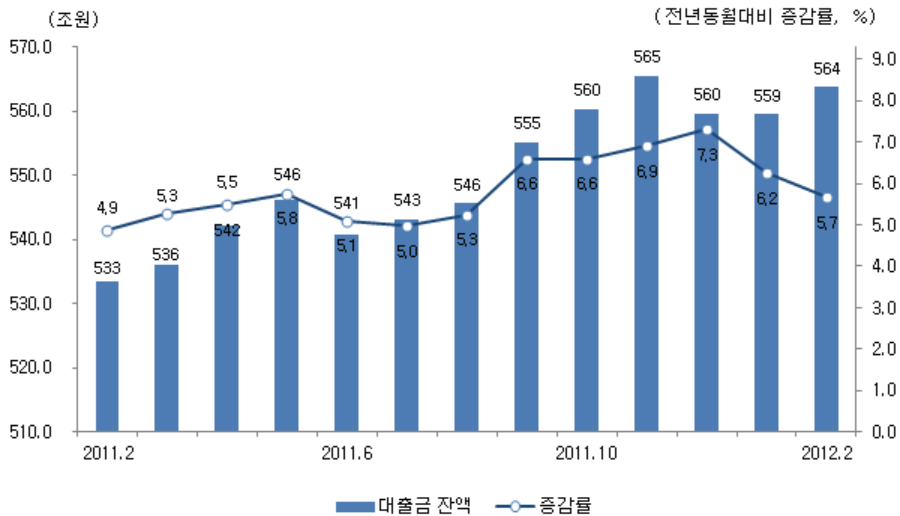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| 가 · 계 · 대 · 출 |

서울의 2월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소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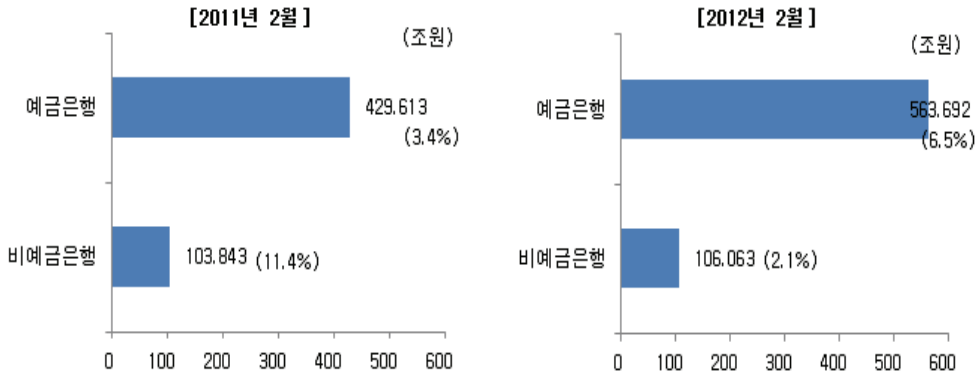
- 2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
 - 2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3조 6,932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4조 2530억원(0.76%) 증가
 -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7조 6,299억원 규모, 비예금은행은 106조 633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6.5%, 2.1% 증가
- 2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3개월 연속 감소
 - 2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,406조 4,63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 4,322억원 (0.17%) 감소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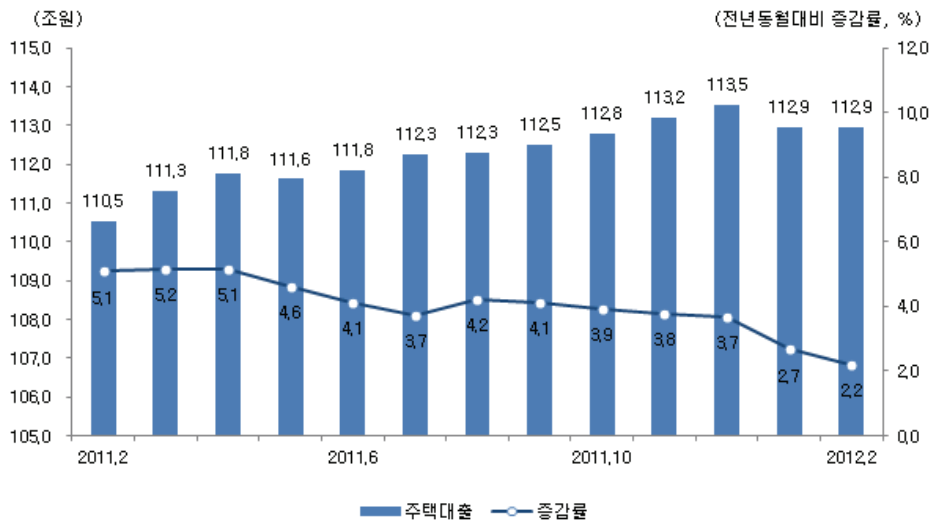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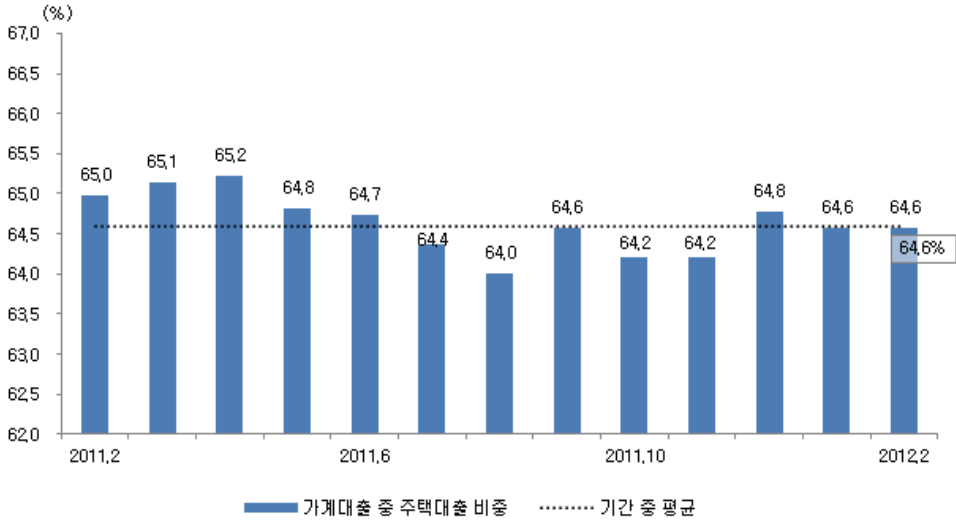
- 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787억원으로 전월대비 81억원(0.05%)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2조 935억원(64.6%)으로 전년동월대비 2.2%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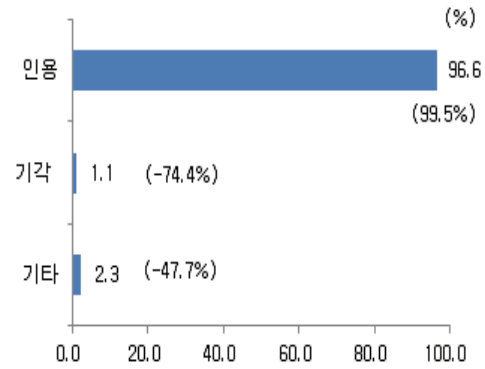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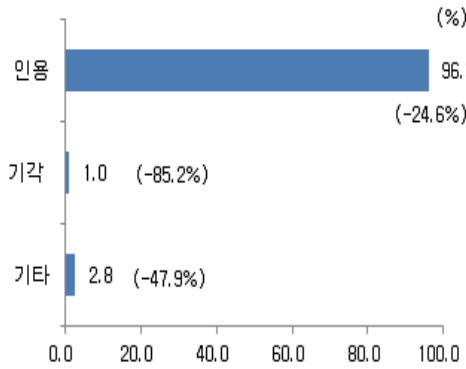
■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

- 3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,156명으로 전월대비 1.2% 증가, 전년동월대비 12.7% 감소
-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1.0%로 전월대비 81.4%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1.1%로 전월대비 71.1% 감소



자료 : 대법원

<그림>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

주 :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,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,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대법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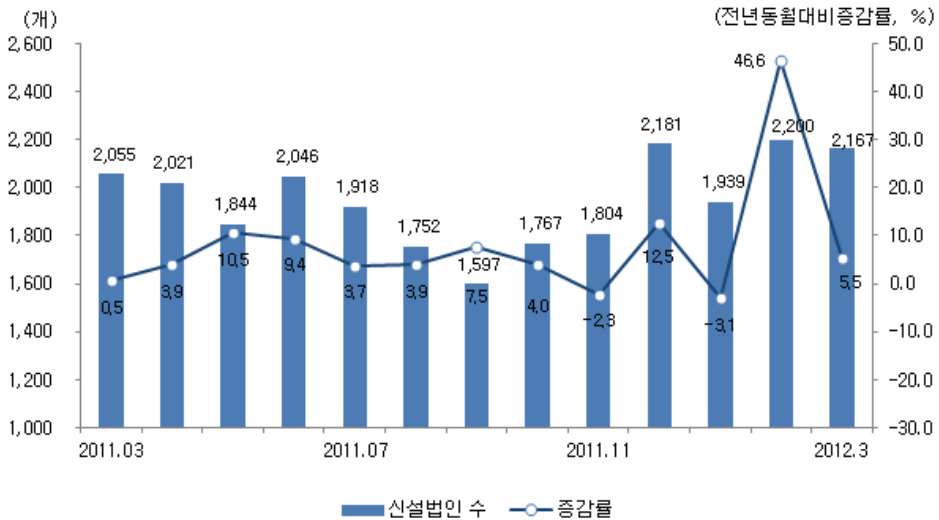
<그림> 3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

<그림> 3월 면책 처리현황

| 신 · 설 · 및 · 부 · 도 · 법 · 인 · 동 · 향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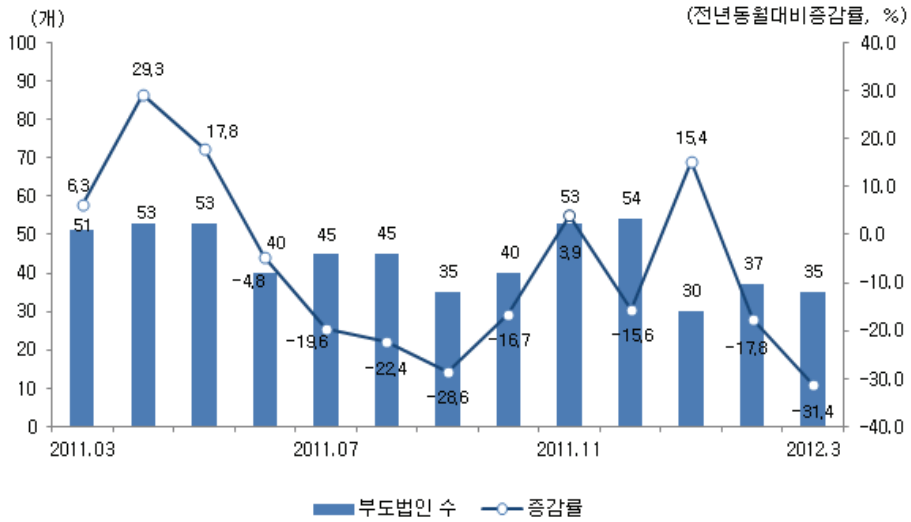
서울의 3월 신설 및 부도 법인 모두 전월대비 소폭 감소

- 서울의 3월 신설법인 수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
 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167개로 전월대비 1.5%(33개) 감소, 전년동월대비 5.5%(112개) 증가
 -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이 전월대비 각각 7.6%(11개), 5.8%(17개)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0.2%(4개) 증가
- 서울의 3월 부도업체 수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감소
 -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5개로 전월대비 5.4%(2개), 전년동월대비 31.4%(16개) 감소
 -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50.0%(2개) 증가하였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전월대비 각각 10.0%(2개), 8.3%(1개)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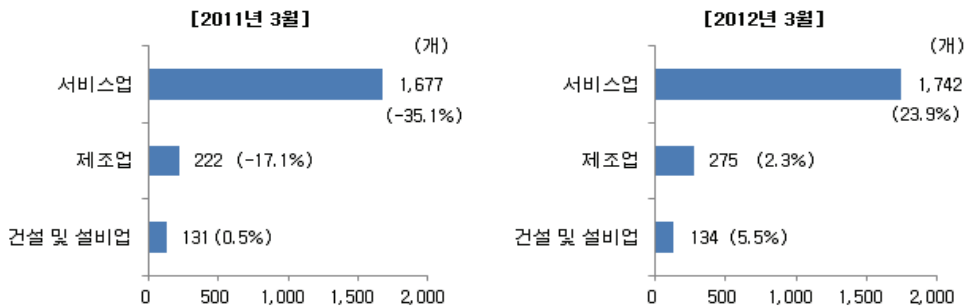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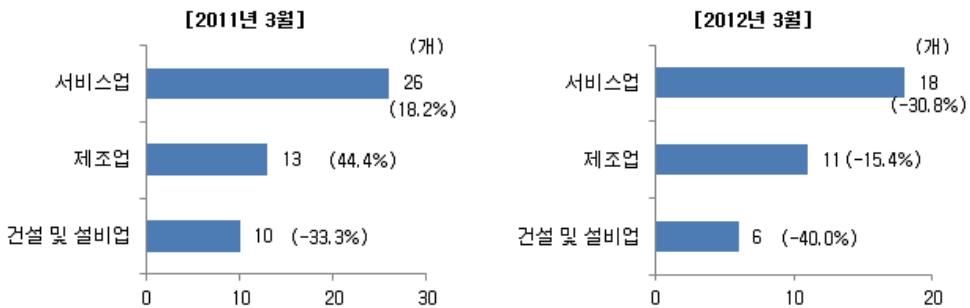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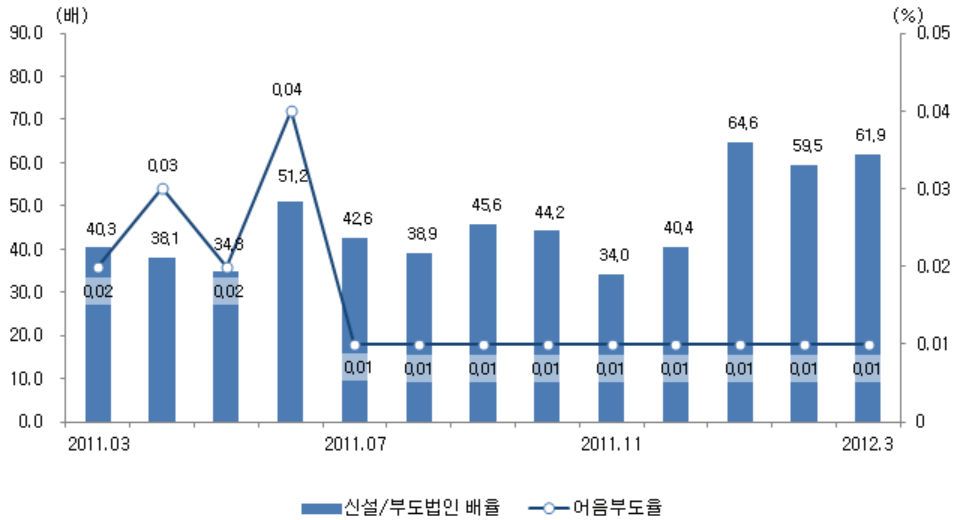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■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소폭 증가

- 3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9개월 연속 0.01%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/부도법인 배율은 61.9배로 전월(59.5배)보다 증가


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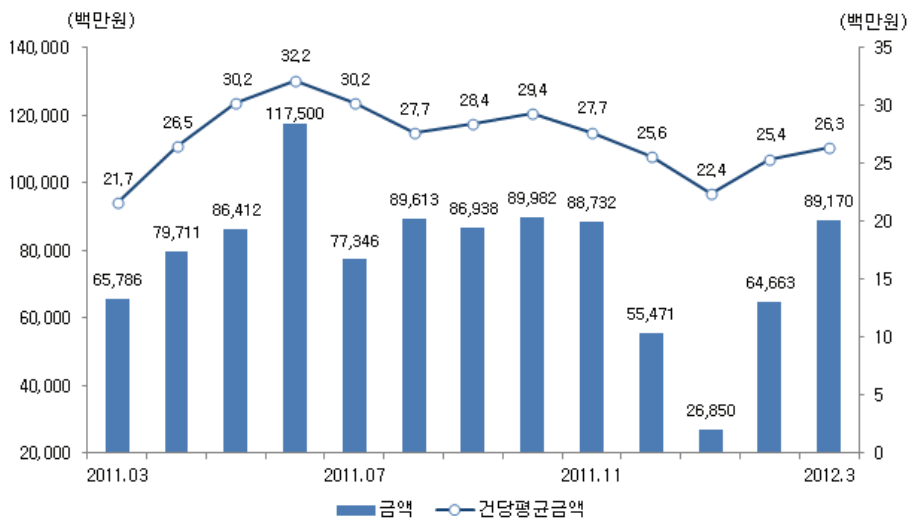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/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·용·보·증·동·향 |

서울의 3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2개월 연속 증가

■ 보증지원 금액과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3월 중 3,385건, 89,170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33.1%, 보증금액 37.9%, 건당 평균지원금액 3.5% 증가
-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11.4%, 보증금액 35.5%, 건당 평균 지원금액 21.7% 증가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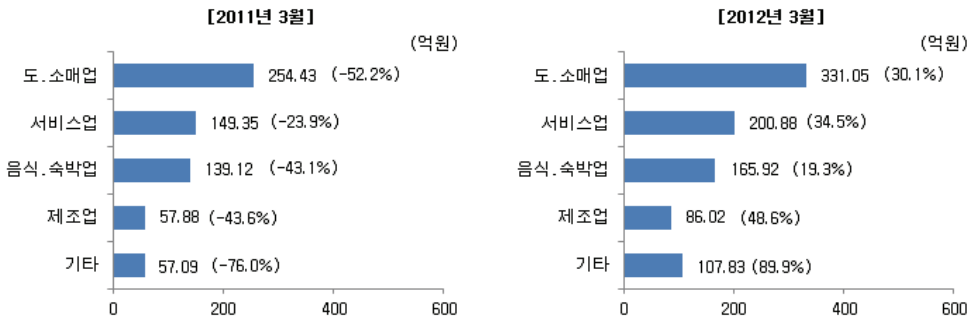
■ 도·소매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상승

- 3월중 도·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37.1%로 전월(35.8%)대비 1.3%p 증가한 반면, 음식숙박업종에 대한 지원은 18.6%로 전월(21.8%)대비 3.2%p 감소

-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36.7%로 전월(35.7%)대비 1.0%p 증가한 반면, 음식·숙박업종은 20.9%로 전월(23.0%)대비 2.1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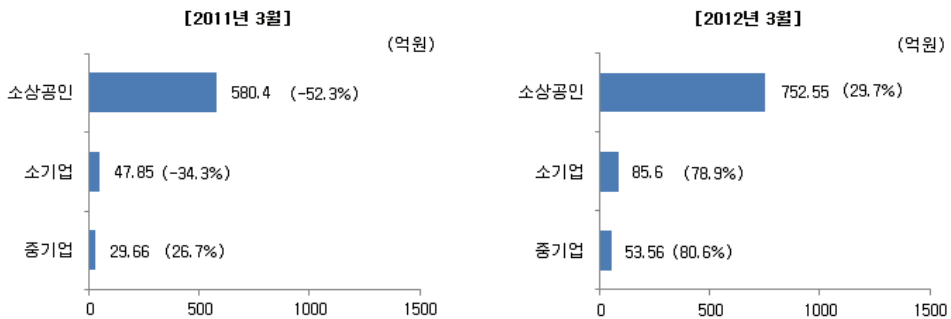
■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

-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4.4%로 전월과 동일하고 건수 기준으로는 93.4%로 전월대비 0.3%p 증가
-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9.6%로 전월과 동일하고 건수기준 4.6%로 전월대비 0.6%p 증가한 반면,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.0%, 건수기준으로는 2.0%로 전월 대비 0.9%p 감소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| 수 · 출 · 입 · 동 · 향 |

서울의 3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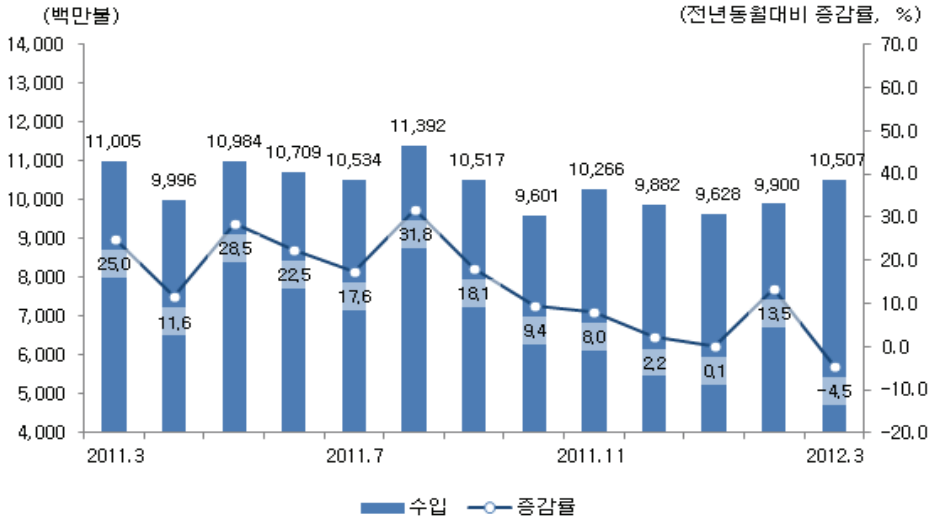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3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
 - 서울의 수출은 50.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0.2% 증가하였고 수입은 105.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4.5% 감소
 - 전국의 수출은 473.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.5% 감소하였고 수입은 449.7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.3% 감소

- 서울의 3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 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47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, 반도체, 고무제품, 편직물 등 순
 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, 석유제품이 92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, 컴퓨터, 의류, 자동차 등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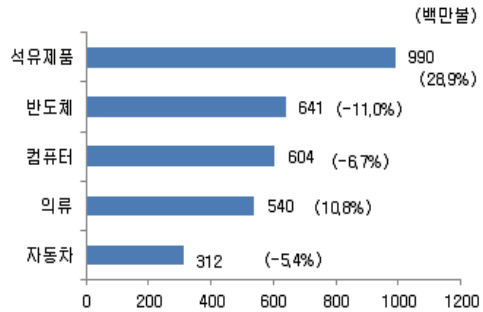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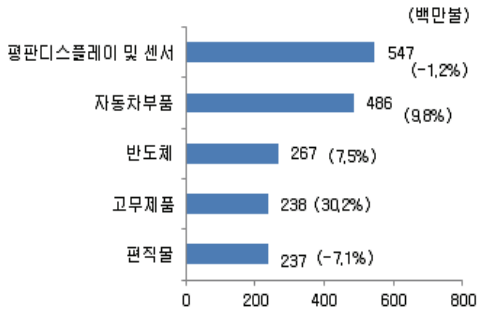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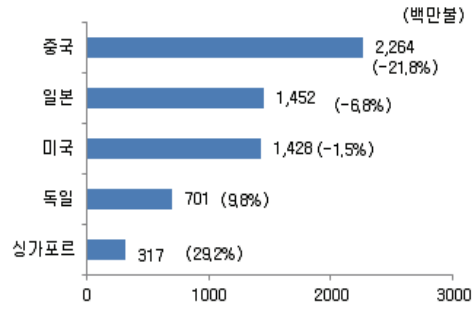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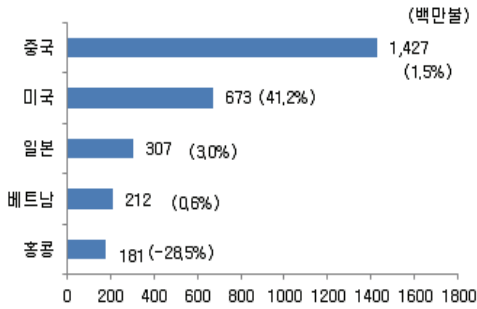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3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<그림> 3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3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.5% 증가한 1,42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베트남, 홍콩 순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1.8% 감소한 2,26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싱가포르 순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3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<그림> 3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<표> 3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

구분	순위	품목명	수출		품목명	수입	
			천불	증가율		천불	증가율
미국		합계	672,519	41.2	합계	1,428,308	-1.5
	1	자동차부품	108,636	25.6	항공기 및 부품	281,884	8.7
	2	고무제품	89,620	37.8	곡실류	84,422	-9.4
	3	무선통신기기	68,395	35.7	농약 및 의약품	66,775	40.7
싱가포르		합계	68,853	19.3	합계	316,952	29.2
	1	반도체	31,233	78.1	반도체	99,255	0.1
	2	컴퓨터	3,391	-3.6	석유제품	58,842	114.5
	3	철강관 및 철강선	2,652	-42.4	기초유분	39,915	1,210.8
페루		합계	5,833	-32.7	합계	7,672	9.0
	1	합성수지	1,213	274.8	금은 및 백금	6,378	50.3
	2	고무제품	893	74.9	의류	584	12.2
	3	합성고무	770	26.9	곡실류	253	233.4
칠레		합계	13,068	21.4	합계	113,024	141.7
	1	자동차	3,526	-2.0	동제품	55,677	2,696.9
	2	고무제품	2,614	170.7	곡실류	26,489	23.9
	3	합성수지	1,419	290.6	육류	11,249	92.4
인도		합계	114,074	7.9	합계	164,394	-43.7
	1	합성고무	27,102	-8.1	석유제품	78,383	-61.3
	2	자동차부품	20,931	46.7	천연섬유사	15,193	58.2
	3	합성수지	13,120	52.1	기초유분	13,559	-9.4